



통우컬럼

고향 가는 길

올 추석에는 백신 접종자 4명을 포함하여 가족 8명까지 모일 수 있겠다. 모름지기 명절에는 고향에서 온 가족과 친지가 다 모여 시끌벅적해야 제 맛이건만 아쉽게도 이번 추석도 단출하게 지내야 할 것 같다.

나는 추석 거리두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 우리 고향은 하늘나라일진대 그날 과연 우리 가족 모두가, 우리 친척들이 우리 고향에서 다 만날 수 있을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 모두 하늘나라에서 재회할 수 있을까?

이번 추석에 백신 접종자를 포함해서 8명까지만 모일 수 있듯이, 그날 천국에서도 예수 이름을 소유한 자들만 모일 수 있다. 이번 추석 모임에 조건과 제약이 있듯, 그날 천국에 모이는 것도 조건이 있다는 것이다. 바로 예수 이름을 소유한 자만 고향에 갈 수 있다. 우리 성도가 꿈을 꾸었던다. 자기가 천국 입구에 도착했는데, 천국 문을 지키는 사자가 “뭇 들어갑시다.”라며 저지하더라. 이 성도가 너무 놀라서 ‘왜 못 들어가느냐’ 하니까 사자가 증표를 보여 달라고 하더라. 증표라고 하니까 뭘지 몰라 잠시 망설이다가 아차 싶어 ‘나는 예수 이름으로 이곳에 왔다’고 말하니까 문을 지키던 사자가 정중히 천국 문을 열어주더라.

그렇다. 예수 외에는 천국으로 가는 길이 없다.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 접종 증명서가 발급되듯 믿는 자에게는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왜냐?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14:6)고 하셨기 때문이다.

그럼 백신 접종자처럼 증명서가 발급되는 것도 아닌데 예수 이름을 소유했는지 안 했는지 어찌 알까? 그 증명서는 ‘성령 충만하냐, 아니냐’로 알 수 있다. 성령충만을 입었으면 그 안에 예수가 있는 것이다.

이번 추석에 다 모이지 못한 가족을 생각하면 아쉽다. 그러나 그날에 천국에서 우리 가족이 다 모이지 못한다면 가슴이 찢어질 일 아닌가. 그러니 이번 추석에 모인 가족에게라도 예수를 전하자. 조상의 은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올 수 있었음을 알리고, 제사가 아닌 예배를 드려야 함을 알리자.

입에 침이 마르도록 하나님을 자랑하자

“나는 한국에서 온 이초석 목사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거하러 왔고,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하러 왔습니다. 나는 이 땅에 혼자 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왔습니다. 이 메시지를 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있을지이다!” 이것은 지난 2015년 중미 파나마의 수도 파나마시티에서 진행된 집회에서 목사님이 단에 오르자마자 외치신 일성이었다. 어느 나라, 어느 집회에서건 목사님이 처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두신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고서
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목사님은 지난 수요일예배를 통해 '제발 세상 것 자랑하느라 시간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디를 가나 하나님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해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나는 여러분들이 나를 닮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삶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을 자랑했는지 자문자답해보기 바랍니다. 아들 자랑, 딸 자랑, 시위 자랑, 손자,

니다. ‘스미스야, 그렇게 기뻐냐? 나는 지금까지 네가 내 말을 증거하면서 오늘날처럼 기뻐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구나. 그렇다면 오늘 밤 네 친구의 영혼을 내가 거두어가면 어떨 거 같으냐?’ 척 스미스 목사는 소스라치게 놀라 눈물로 회개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갖고도 이를 증거하면서 스스로 믿지 못한 자신이 너무나 회개가 되더라입니다. 그는 그 후 전 미국에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큰 종이 되었습니다.

성도들 중에 자랑과 간증을 혼동하여 하나



2015년 파나마 집회 광경

음 단에 서서 회중에게 선포하는 메시지가
다. 또한 이에 더하여 “오늘이 자리에 성령
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나는 가짜 목
사요!”라고 답대며 선포하신다.

그리고 36년을 항구여일하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못하는 일이 없으신 분이지만 단 한 가지 못하는 것이 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신다.”

그렇다고 예배를 인도하실 때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 전도집회에서만 그러시는 것이 아니다. 누구를 만나든, 장소 구분 없이 목사님은 항상 하나님을 자랑하고 간증하며,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하고, 좌절 낙담하고 있는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릴 수 있을까’에 온 삶을 던지시는 분이다. 그래서 성령충만을 받기

손녀 자랑, 남편 자랑, 그뿐입니까? 세상 권력 자랑, 돈 자랑, 그놈의 자랑, 자랑, 다 헛되고 헛된 세상일뿐입니다. 허룻밤에라도 하나님께서 그영혼을 거두어가면 스러져 버릴 일에 일희일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미국 갈보리 처치의 척 스미스 목사님 간증을 들었습니다. 목회 초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쪼들리는 개척교회 재정에 돈 만 불이 급히 필요하여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백방으로 알아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작정 기도 마지막 날 밤, 친구로부터 전화가 걸려옵니다. 그 친구에게서 내일 그 돈을 마련해주겠다는 말을 듣는 순간 척 스미스 목사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뿔 듯이 기뻐했다고 합니다. 방에 들어가 조용히 무릎을 꿇고 감사 기도를 올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

님 자랑하는 자를 교만하다고 판단하거나,
 혹은 자랑하면 상이 없다며 간증하기를 거
 부하는 경우도 봅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찌니라'(고후10:17)고 사도
 바울도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
 님, 내 기도예 응답하신 하나님, 내가 경
 험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은 내 자랑
 이 아닙니다. 이것은 간증이며 이를 통하
 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
 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를 증거할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 일 자랑
 에 침 튀기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자랑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욱 사
 랑할까 생각하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하나
 님을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
 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은택 목사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라
모든 예배는 비대면 예배로 진행됩니다.**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출20:1~6)

신앙에는 타협이 없다

손양원 목사의 두 아들인 동인과 동신은 1948년 10월 여수반란사건 때 순교했습니다. 당시 동인은 24세, 동신은 19세였습니다.

사건이 발발하자 좌익 폭도들은 형제에게 성경을 밝고 지나가면 살려주고, 아니면 죽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러자 형인 동인은 “너희가 내 내장을 모두 끌어낼 수는 있어도 내 마음속에 계시는 예수는 빼앗아 가지 못한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폭도들은 동인을 죽여 버렸습니다. 동신은 형의 시신을 안고 “너희는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고 폭도들에게 외쳤습니다. 그러자 폭도들이 “저 놈도 죽여라.” 했고, 동신은 “죽여라. 나도 하늘나라에 가고 싶다. 주여, 제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외쳤고, 즉시 사살되었습니다. 두 형제는 아버지인 손양원 목사에게 배운 것이 있었습니까. ‘세상 모든 것은 타협해도 신앙만은 절대 타협하지 말라.’

당신도 동인, 동신처럼 예수 믿으면 죽인다는 협박에 신앙을 고수할 수 있습니까? 제가 너무 극한 상황을 연출했나요? 그렇다면 수위를 조금 낮춰보겠습니다. 상량식에서 사장이 돼지머리에 절하라고 하면 “나는 크리스천입니다.”라고 밝히고 상사의 명령을 거역할 자신이 있습니까? 밥줄이 끊어질 수도 있는데요?

핍박을 기뻐하라 그날에 상이 크다

제가 왜 이렇게 서두가 길었는지 다 눈치 채셨을 겁니다.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명절 때면 꼭 제가 제사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곤 합니다. ‘올해는 그냥 좀 넘어가시지...’ 하는 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해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진리는 ‘신앙에는 타협이 없다. 제사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제사 문제로 곤란을 겪고, 핍박을 받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압니다. 그 고충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이미 겪었던 일이기 때문에 더욱 잘 압니다. 저도 제사 문제로 어머니와는 물론이고 형제 및 친지들과 원수가 되어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무려 13년 동안 지척에 있는 어머니 집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재산문제라면 얼마든지 타협하고 양보하겠지만, 신앙만은 그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그런 저를 기뻐하사 명성을 얻게 하였고, 어머니와 모든 가족을 구원하게 하였고, 동생과 아들, 조카들이 주의 종이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시험을 통과하면 이런 복을 받습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삼십일 동안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이든 구하면 사자굴에 넣는다는 금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루에 세 번씩 기도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갈지언정 신앙의 타협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하셨고, 오히려 다니엘을 다리오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왕의 시대까지 형통케 하셨습니다(단6:28).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도 느브갓네살이 만든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질 위기에 처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풀무불에 들어가는 쪽을 택했습니다. 절대 신앙에 타협은 없다는 대쪽 같은 믿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탄복하셨고, 주의 천사들을 급

파하사 풀무불 가운데서 그들을 건지셨으며, 그들을 더욱 높이셨습니다(단3:30).

제 간증과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이야기를 들으니 좀 힘이 되셨습니까? 힘든 거 다 알고, 얼마나 곤란한지도 알지만, ‘지혜롭게 해라.’고 말할 수 없음은 하나님의 일은 순종이나 불순종이나 이분법이기 때문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 중 첫 계명입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출20:5~6)고 경고하셨습니다. 경고를 무시하면 경고도 여러분을 무시하는 법, 감히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야 어찌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더디 내려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화가 난 모세는 시

내산에서 받은 증거판을 깨트려버리고 금송아지를 불살라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레위 자손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屠戮)하라 하셨느니라”(출32:27)고 하였습니다. 우상 숭배한 자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날 모세의 말을 듣고 레위 사람이 죽인 숫자는 3천 명가량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출32:29).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고 제사

그렇다면 ‘절은 안 하고 며느리니까 음식 장만만 하면 안 될까요?’ 하고 묻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도 안 됩니다. 예레미야 7장 18~19절 말씀입니다. “자식들은 나무를 쥘고 아비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 황후를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격동하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나를 격노케 함이나 어찌 자기 얼굴에 수욕을 자취함이 아니냐.” 여자들이 우상에게 제사 지내기 위해 부침개를 부치고 나물을 무치는데, 하나님이 이를 보시고 격노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자고로 망을 본 놈이나 담을 넘어간 놈이나 장물을 내다 판 놈이나 다 도둑놈이고, 다 벌을 받는 법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로다”(시115:8)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그렇다면 제사 끝나고 천천히 가면 되겠네요. 그런데 제사 음식은 먹어도 되나요?’ 하고 묻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하매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 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고전10:24~28). 쉽게 말하면 ‘이게 제사 음식이냐?’ 하고 묻지 말고 먹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혹 그것이 제사 음식인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알게 한 자와 자신의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생전에 잘 모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출20:12)고 하셨지,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상 높게 차리면 복 받는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살아계실 때 고기 한 번이라도 더 사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한 번 더 찾아뵙는 게 옳습니다. 더욱이 믿지 않는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들을 예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가장 큰 효도입니다.

추석은 죽은 조상에게 제사하는 날이 아니라 온 가족이 모여 풍성한 곡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나라의 추수감사절입니다. 이번 추석 온 가족이 모여 하나님을 찬양해보세요.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그 가정에 충만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총회장 이초석 목사

지 내 는 것 을 제일 싫어하십니까. 왜냐하면 제사

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고전10:20)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 건만 성경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귀신이란 불신자의 사후의 영, 곧 믿지 않고 죽은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살았을 때야 할아버지요 할머니지만 믿지 않고 죽었으면 다 귀신이 되는 겁니다. 저도 제사는 지내봐서 아는데, 실제로 제사를 지낼 때 지방이라는 것을 써서 제사상에 올려놓습니다. 그 지방을 보면 ‘故’ 아무게 神位’라고 씁니다. ‘신위(神位)’는 ‘죽은 사람의 영이 의지하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이는 조상을 단순히 사람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신의 자리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고전10:20~21)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 객원컬럼 ::

:: 웅달샘 ::

테이퍼링에 대비할 때

‘테이퍼링’은 중앙은행이 국채, 회사채 같은 자산을 직접 매입하는 방식으로 시중에 돈을 풀던 ‘양적 완화’를 서서히 멈추는 것을 이르는 말입니다.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투입되었던 유동성에 대한 회수와 관련하여 처음 사용된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유동성에 대한 회수가 정상적으로 집행되기도 전에 코로나19로 인해 각국 정부는 재난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무제한 수준의 현금을 자국민에게 지원한 결과, 전 세계는 유사 이래 최대의 유동성 공급과잉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팬데믹, 그리고 이로 인한 일상의 비정상화, 두 가지 모두 해결되지 못한 와중에서 동일한 상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편 외부에 노출되지 않은 세계적인 전통적 부호들은 유럽은행에 예치, 혹은 위탁하였던 초단기 안전자산들 까지도 단기간에 처분하고 자신들의 직접적인 통제 가능한 형태의 자산으로 빠르게 전환하다 보니 현지 시중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 및 자산운용사들은 이를 총력 저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각종 매체를 통하여 보도되는 경제위기의 경고가 현실화 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신호라고 확신합니다.

산업혁명 시대부터, 혹은 그 이전부터 축적된 자본을 기초로 구성된 자산, 그리고 사회구조를 갖고 있는 서구 및 일본과 달리 대한민국은 냉전시대에 선진대

국의 이해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원을 받은 계획국가입니다. 따라서 외부환경을 선제적으로 대응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도래되는 상황이 항상 기회가 되었거나 악재가 되었음은 역사적으로 다양한 사건을 통해 경험해온 바입니다. 1997년 IMF 구제금융 위기나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촉발된 국제금융위기로 우리가 치러야했던 국가적 비용은 가히 천문학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있을 대선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정부가 어떤 정책을 가지고 이 나라를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 또한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진정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 중심교단이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한 이 한반도에 전쟁은 없을 것이고, 통일 혹은 이에 준하는 결합은 반드시 실현됩니다. 1945년 일본의 항복으로 인하여 한국은 독립했지만 힘이 없었기 때문에 승전국의 결정에 따라 한반도는 분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분단되었던 한반도가 재결합되도록 하실 것이고 그때 통일의 주권을 누가 쥐느냐는 단언컨대 우리의 준비상태에 달려있습니다.

총회장 목사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병아리가 자신이 껍질을 깨고 나오면 닭이 되고, 타인이 깨어주면 후라이가 된다고.

임윤석

:: 성경에세이 ::

안보가 우선이다

여보게!
나는 작금의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보면서 생각이 깊다네. 더욱이 어느 선교사가 전해준 그곳의 적나라한 실상을 영상으로 접하고는 잠을 이루지 못했네. 이것이 결코 이웃집 불구경이 될 수 없음은 우리나라의 현실 때문일 게야.

누차 말했지만, 안보 없는 민주주의는 없고, 안보 없는 경제성장도 없네. 튼튼한 안보가 없는 자유와 평화는 사상누각일 뿐이지. 자유와 평화가 힘이야. 내 스스로 나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자유와 평화가 보장된대네.

국가를 잃은 백성은 국가 있는 개보다 못한 것이 사실일진대, 국가를 잃은 자에게 무슨 미래와 소망이 있을까. 아내 없는 설움, 남편 없고, 자식 없는 설움, 집 없는 설움이 크지만 나라 없는 설움보다 더 할까? 전쟁은 모든 희망의 끝이라네. 더욱이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일진대 아프가니스탄 내에서 벌어지는 참상과 참화를 어찌 다 필설로 나열할 수 있을까. 가슴이 아플 뿐이네.

아프가니스탄을 위해, 그리고 그곳에 남은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네. 아울러 이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록 함심으로 기도해야 해. 이건 당연한 우리의 의무야.

여보게!
또 하나, 영원한 동지도, 영원한 우방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아프간 철수와 관련해 “미국의 국익이 없는 곳에서 싸우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했네. 한반도에 서라고 언제까지나 예외가 될 수 있을까. 그러니 자주국방력을 키워야 해. 도움받기가 아니라 홀로 설 수 있도록 말이야.

새삼 “가난한 자는 그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 아니 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찌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잠19:7)는 말씀이 가슴에 와 닿지 뭔가.

우리가 의지할 것은 대국(大國)이 아니라 하나님이야. 그래서 성경은 일찍이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전3:21)고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던 게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개인이나 기업, 국가는 절대로, 절대로 망하지 않는대네. 이 나라의 운명, 기도하는 우리에게 달려있네!

봉우

전쟁에 이기려면

세기는 로마로 통한다는 파스 로마나 시절, 어릴 때부터 함께 자라 로마의 장교가 된 두 친구가 있었다.

그런데 둘 성격은 너무 달랐다. 집안이 좋아 별 어려움이 없이 장교가 된 안토니우스는 매사에 바짝 매달리는 자세가 부 족했다. 그저 돈 잘 쓰는 멋으로 병사들에게 인기를 유지한다고 할까? 전장에서 돌아와도 마방에 말을 맡기면 그만이었 다. 말도 수고했으니 쉬어야 한대냐? 그런데 친구 막시밀리안은 남달리 어려운 유년 시절을 보낸 까닭인지 철저한 준비와 쉼 없는 자기 연마로 장병들도 그를 존경하고 따랐다. 전쟁에 나가서도 그는 늘 진두지휘를 했고 눈부신 전과를 올렸 다. 특히 놀라운 것은 전장에서 돌아와도 말을 쉬게 하지 않는 거다. 다람쥐 쳃바퀴처럼 돌아가는 큰 바퀴 앞에 말을 묶어놓고 앞발을 올려놓는다. 그러면 말은 어쩔 수 없이 돌아가는 쳃바퀴에서 발을

굴릴 수밖에 없다. 주위에서는 다들 한 마디씩 한다. ‘아니, 말도 쉬게 해줘야지. 전장에서 막 돌아온 말에게 너무 가혹한 거 아니?’

그러나 그 효과는 즉시 판가를 났다. 전쟁이 터지고 다시 말들은 전장으로 달려 가야 했다. 그런데 안토니우스의 말은 너무 쉬었음인지 제대로 달리질 못해 허둥 대다 그만 적에게 포위를 당하고 말았다. 그런데 막시밀리안의 말은 마치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달려 나가는 것이 아닌가? 안토니우스를 가까스로 구출해낸 것도 바로 막시밀리안이었으니 사람들은 그 후로 마방마다 대형 쳃바퀴를 설치하고 말을 훈련시켰다. 로마 기병의 명성은 여기서부터 시작됐대냐?

반복적인 훈련만이 최고를 만든다. 글도, 노래도, 그림도, 설교도, 운동도…. 늘 꾸준히 쉬지 않고 준비하고 연습하고 훈련하는 자를 누가 당하랴!



:: 생명의 말씀 ::

열정과 냉정 사이

누구에게나 열정의 때와 냉정의 때가 교차한다. 뜨거울 때와 차가울 때, 흥통할 때와 곤고할 때, 원하는 삶과 원하지 않는 삶!

그런데 열정과 냉정 사이의 온도 격차가 클수록 회복이 힘들다. 그래서 열정의 때를 위해서, 냉정의 때도 잘 감당해야 한다. 힘든 시간마저도 사랑하고 붙들어야 인생을 사랑하는 것이다.

총회장 목사님을 보필하며 외국 집회를 다녔던 2003년의 싱가포르 집회를 떠올려 본다. 각국의 유명한 목회자들을 초빙하여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도하는 세미나였다. 먼저 도착하여 집회에 참석하고 있던 우크라이나의 세르게이 목사가 총회장 목사님의 참석을 간절히 기다렸다고 고백한다. 이유는 냉랭하고 건조한 집회에 강력한 은혜의 단비가 필요하다고 느낀 것이다. 총회장 목사님은 원색적인 복음으로 확실한 존재감을 낮 집회부터 알리셨고, 그날 저녁 집회에는 뜨거운 성령의 역사로 분위기가 반전되었다. 흥분한 많은 목회자와 일행들이 집회가 끝나자마자 함께 저녁식사에 참여하려 몰려들었다.

그런데 30분이 넘도록 약속 시간에 나

오지 않으시는 총회장 목사님을 모시러 일행과 함께 방으로 들어갔다. 놀라운 모습을 발견했다. 인기척도 아랑곳하지 않고, 강단에서 입으셨던 그 젖은 옷 그대로인 채로 방석 위에서 무릎을 꿇고 부르짖으며 계속 기도하고 계셨다. 마치 강단 위에 또 다시 올라가실 듯한 열정으로 말이다. 강단의 영광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었다. 열정과 냉정 사이에서 모두 다 총성하시는 이 모습에 강렬한 인상을 받았다.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기 힘든 일을 10배 감당해야 한다’는 말이 있다. 누구나 다윗 왕처럼 되라 하면 다들 좋아한다. 그런데 그의 오랜 광야 생활은 쉬운 게 하나도 없었다. 기도와 말씀으로 냉정의 시간을 인내하지 않으면 다윗이 되지 못한다.

장기화하는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 영적 피로감이 누적될 수 있고, 이를 핑계로 신앙의 비수기를 보낼 수도 있다. 냉정의 때를 과연 무엇으로 채우고 있는가 자문자답해볼 시기이다. 주님은 말씀하신다. 즐거움의 때에 찬송하기 위해선, 고난의 때를 기도로 채우라고 말이다(약5:13).

송지화 목사

거절과 거부 속에서 믿음과 신앙이 자란다

미국 빈민가에 사는 한 젊은 부부가 생활고를 벗어나기 위해 죽도록 노력했지만 허사였습니다. 남자는 영화배우를 꿈꾸며 살았는데 그들의 삶에서 그것은 거리가 먼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많은 종류의 일을 했습니다. 영화관 안내원, 피자 배달부, 청소부, 단역배우, 보디가드, 심지어는 성인물 배우에 이르기까지... 하지만 늘 생활고에 허덕이는 생활은 그들의 삶에 족쇄처럼 따랐습니다.

이런 거절과 거부가 반복되는 생활은 도저히 안 된다고 여겨 무언가 큰 결심을 해야만 했습니다. 남자는 12살 때 부모의 이혼으로 12번이나 학교를 옮겨 다녀야 했고 늘 거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거절과 어둠의 연속이었고 불행했습니다. 그로 인해 그의 삶은 마치 암흑의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남자의 서른 번째 생일날, 그의 부인은 가지고 있는 마지막 돈 1.15달러로 아주 빈약한 케이크를 사왔습니다. 그들은 촛불을 켜고 축하의 노래를 부른 후 아내는 촛불을 끄기 전 진지하게 남편에게 소원을 말하라고 말했습니다. 그 남자는 비통한 표정으로 “제발 이 지긋지긋한 가난한 생활이 끝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 남자는 우연히 TV에서 무하마드 알리와 척 웨프너의 권투시합을 보았습니다. 그 시합은 한마디로 처절한 경기였습니다. 하지만 관중들이 약자가 끝까지 시합을 해내는 모습을 보고 환호성을 지르는 모습에 그는 깊은 감명을 받았고 그 시합 장면이 머릿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는 곧바로 망설임 없이 반나절 만에 시나리오 하나를 완성시켰습니다. 그리고는 그 시나리오를 들고 용감하게 영화사를 찾아가 자기가 쓴 대본으로 영화를 찍자고 제의했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그것도 어처구니없이 자기를 주연으로 써달라는 것이었기에 거절과 거부는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우여곡절 끝에 한 영화사에서 우연히 100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고, 수익은 1/10밖에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각본료 또한 고작 2만 달러였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제의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거절과 거부 속에서 연단되었던 그 남자는 영화를 찍겠다는 일념에 오히려 너무 기뻐하며 흥행파인 아랑곳하지 않고 계약했습니다. 그의 영화는 불과 28일 만에 초스피드로만 들어졌고, 제작은 장소 사용료가 많이 드는 할리우드가 아닌 비용이 들지 않는 뉴욕에서 촬영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웬일입니까? 개봉 당일부

터 관중들이 줄에 줄을 이었고 영화는 한마디로 완전 흥행 초대박이었습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권투시합을 끝낸 주인공이 붓고 피가 흐르는 얼굴로 그의 사랑하는 여인을 부르는 장면에서는 모든 관중이 일어나 기립 박수를 보냈습니다. 어떤 이는 눈물을 흘리기까지 했습니다. 그 영화가 바로 ‘록키’입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실베스타 스탈론입니다. 이 영화는 처음 수익만 5,600만 불이나 댔고 총 수익은 1억 불이나 되었습니다. 그 이후 총 5편의 록키 시리즈가 모두 흥행에 성공하여 그는 부와 명예를 동시에 획득했습니다. 그의 성공요인은 수많은 거절과 거부로 인해 작은 기회에도 감사하며 달려드는 절실한 적극성과 과감한 결단이었습니다. 어떤 인터뷰에서 성공비결을 묻는 그에게 주인공 실베스타 스탈론은 “성공이란 수많은 거절과 거부 속에서도 실패를 이겨내려는 노력이 최절정에 이른 상태를 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는 상대로부터 거절과 거부당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의 인생 역정 속에서 가까운 지인에게도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점점 동굴 속으로 자기 자신을 가두고 철저히 외부로부터 고립되어 체념의 삶 속에서 절규합니다. 성경 속 대선지자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체념과 좌절의 순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성경 속에는 많은 거절과 거부 속에서 체념과 좌절의 세월을 보내다가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인물이 많이 있지만, 저는 누구보다도 모세를 존경합니다. 모세는 태어났면서부터 세상으로부터 거부당했습니다. 히브리 남자 아이는 모두 죽이라는 애굽 왕 바로의 명령이 그했고, 부모가 몰래 숨겨 키웠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갈대 상자에 넣어 하수에 던져졌습니다. 다행히 적국 이집트 공주에 손에 의해 물에서 건져졌다 하여 물에서 건져낸 아이, ‘모세’로 이름 지어집니다. 모세가 장성하여 40세에 이르렀을 때는 동족인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매 맞는 광경을 보고 애굽 사람을 죽였다가 발각되어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는 거부와 거절을 당합니다. 왕자의 신분에서 미디안 광야 양치기로 전락하여 40년을 살게 되면서 좌절과 체념의 절망 속에 그저 보잘것없는 늙은이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여호와와의 사자가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불러내어 히브리 민족의 해방과 출애굽을 위해 억지 춘향의 모습으로 애굽으로 보내집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계시를 받았고 하나님께 떠밀리듯 돌

아온 애굽이었지만 애굽 왕 바로는 10번이나 히브리 민족을 놓아주기를 거절합니다. 애굽의 장자가 죽어나가는 열 번째 재앙이 있고 나서야 애굽 왕 바로는 히브리 민족을 놓아주지만 이내 군대를 이끌고 추격해옵니다. 또 거절당한 것입니다. 히브리 민족 또한 모세를 원망하며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모두 홍해에 수장시킬 것이냐’고 모세에게 돌을 던지며 모세를 죽이려 합니다. 히브리 민족으로부터 또 거부당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거절과 거부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되어갑니다.

“내가 누구관대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출 3:11) 하며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던 모세는 겁쟁이였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하나님의 부름에 소극적인 종장부였지만,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앞에는 홍해 바다, 뒤에는 뒤쫓아오는 애굽 군대 사이에서 이제 결코 당황하지도 않고 겁을 먹지도 않으며 오히려 당당한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출 14:13) 참으로 위대한 믿음의 선언입니다. 모세는 드디어 수많은 거절과 거부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신앙의 내공이 깊어지고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어 홍해를 가르느 이적의 실력자가 되었고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호령합니다.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은 모세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구약에 이어 신약에서도 모세의 믿음을 크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 앞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가운데 힘써 기도하지만 주변으로부터의 거절과 거부 속에서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하는 의심이 들고 기도의 응답이 없어 낙심되십니까? 하나님은 거절과 거부 속에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대들보로 사용할 나무는 계속해서 가지를 쳐내고 오랜 기간 다듬어 많은 시간 불 속으로 물속으로 던져지며, 웅이를 깎아내고 옷질을 하는 온갖 우여곡절을 통해 나옵니다.

예를 들자면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3년 내내 전교 1, 2등을 해야 의과대학에 진학할 수 있습니다. 의과대학 6년 동안 한 과목이라도 F 처리되면 유급되어 1년을 더 다녀야 합니다. 의과대학생의 평균 졸업연수가 8.4년이라는 통계를 보면 6년 만에 졸업하는 학생은 절반이 되지 못합니다. 또한 의과대학 졸업 후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의 수련을 받고 국가고시를 통해 한 명의 전문의가 탄생합니다. 전문의 자격 면허를 받고도 최소 5년은 대가 밑에서 조수 생활을 해야 비로소 단독적인 진료와 수술이 가능한 경력과 내공과 실력이 있는 전문의사가 됩니다. 합쳐보면 총 20여 년 인고의 세월 속에서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전문의가 됩니다. 20년의 세월은 늘 거절과 거부의 시간입니다.

오늘 거절과 거부 속에서 힘들고 눈물나십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크게 사용하시기로 예정하고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크게 사용할 사람일수록 수많은 거절과 계속되는 거부 속에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거절과 거부 속에서 만나는 사건과 사람들은 걸림돌이 아니고 디딤돌입니다. 이 디딤돌이 우리를 모세처럼 위대하게 성장시킵니다.

우리 예수중심교단에도 모세와 같은 분이 계십니다. 이단이라고 거부당하고 종교재판에서 제명하겠다고 거부당하며 40년 가까이 수많은 거절과 거부 속에서 인고의 세월을 거쳐 예수님만 바라보고 전 세계를 복음화 하셨으며 지금도 큰 능력을 행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계십니다. 누구일까요?

‘거절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으니라. 거절과 거부를 이기지 못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거절과 거부 속에서도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거절과 거부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승리하는 예수중심교단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신우신경의과 재활의학과
(메디스텔 줄기세포센터)
대표원장 안계훈

코로나19사태의 종식을 위해 다함께 합심으로 기도합시다!